

“곧 태어날 딸 보고 美로”... 입지 절박한 송성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을 맺은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홈 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아내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아이 얼굴만 보고 비행기에 올라야 할 것 같네요.”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MLB) 무대 입성을 확정 지은 송성문(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송성문은 5일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행복으로 눈곱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2세 탄생도 눈앞에 됐다. 곧 태어날 딸을 기다리는 그는 “메이저리그 진출만큼 큰일”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그는 출산 직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한다.

이달 중순이 ‘아빠 예정일’인 송성문은 “원래 더 빨리 출국해야 했지만, 출산은 꼭 보고 싶어서 구단에 양해를 구해 24~25일쯤으로 (출국) 일정을 잡았다”며 “조리원이 못 가고 생이별해야 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지난 시즌 타율 0.315, 26홈런, 90타점으로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골든글러브도 품에 안은 송성문은 이제 김하성(애들랜트 브레이브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히어로즈 선후배’가 기다리는 미국으로 향한다.

샌디에이고와 4년 총액 1500만 달러(약 220억 원)에 계약한 송성문은 비장한 각오로 ‘절박함’을 보였다. “서른을 앞두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컸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이제 샌디에이고의 ‘루키’로 치열한 주전

샌디에이고 입단 전 출산 겹경사 날짜 미뤘지만 조리원은 동행 못해서 서른 앞둔 위기감에 기량 늘리니 20-20 클럽·MLB 진출 등 따라와 “내 이름 팔아서 빨리 적응해라 하성이 형 조인이 큰힘 됐어요” WBC합류는 미장... 현지적응 우선

경쟁을 예고한 송성문과의 일문일답이다.

출국 전 준비로 바쁠 텐데 어떻게 지내나
오전에 근력 운동, 오후엔 기술 훈련을 하고 운동 끝나면 영어 학원에 다닌다. 아내 출산 준비도 거의 마쳤다. 다만 조리원에는 같이 못 간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야구선수로서 인생 마지막 도전 시기라 아내도 많이 지지해줬다.

야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3학년 때 야구부가 있는 봉천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아버지와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캐치볼을 하다가 야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전학을 가게 됐다.

처음부터 내야수였나.
야구를 시작하고 1년은 외야수를 봤다. 그때는 공을 제대로 못 잡을 시절이라 내야를 할 수가 없었다.(웃음) 보통 처음 시작하면 다 외야수로 시작하지 않나. 그러다 봉천초

야구부 인원이 없어서 부모님이 리틀야구단을 알아보고 용산구 리틀야구단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야구대표팀 사이판 훈련 캠프는 합류하나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의견은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았다. 상황을 보니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 KBO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년간 기량이 급성장한 이유는?
나이 서른을 앞두고 ‘이제 팀에서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벤치에 앉아서 경기 보는 걸 원하는 선수는 없지 않나. 그게 두려웠다. ‘이제 주전 못 하겠다’는 위기감이 저를 비웠고, 결혼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도 얻으면서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하루하루 버티며 희망을 품었던 게 결과로 나온 것 같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결심한 시점은.
작년 8월이다. 그전까지는 ‘시즌 끝나고 포스팅 신청이나 해보지 않는데 8월 리그 월간 최우수선수(MVP)를 받고 20홈런·20도루 클럽 가입과 다년 계약 이후 ‘진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샌디에이고를 선택한 이유는.
샌디에이고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스타 플레이어 많고 팀인텐드도 계약 조건(4년 차선수 옵션, 5년 차 상호 옵션 등)에서 배려가 느껴져서 마음이 갔다. A.J. 프렐러 단장님과 미팅했는데 지난 2년간 어떤 변화를 줬는지

깊이 있게 물어봐 줘서 놀랐다.

김하성과는 미국에서 연락했나.
밥을 한번 먹었다. 하성이 형이 가서 내 이름을 많이 팔아라. 동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줬다. 예전에는 하성이 형이 워낙 스타라 좀 어려웠는데 조언도 많이 해주고 챙겨줘서 고맷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합류에 대한 생각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조심스럽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 포지션인 3루 외에 2루수나 외야수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팀과 리그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나가는 건, 저를 믿고 기용해야 하는 소속팀(샌디에이고)과 대표팀 모두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 8월 고척 경기에서 폰세를 상대로 스카우트 앞에서 홈런을 쳤던 게 기억에 남는다.
팀을 지고 있었지만 그 홈런을 친 순간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후회 없이 보여줬다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키움 팬들께는 제가 매년 잘했던 선수도 아니고 이제 막 2년 잘하고 떠나 죄송한 마음도 있다. 그런데도 꿈을 응원해 주시는 팬들께 감사드린다. 샌디에이고 팬들에게는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 우리 팀이어서 다행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연합뉴스

“정식 감독보다 낫네”... 프로배구 4개 구단, 대행 체제로 ‘GO’

프로배구 2025-2026 V리그가 4라운드 중반으로 치닫하는 가운데 ‘감독 사퇴’를 겪은 남녀부 4개 구단 모두 남은 시즌을 감독대행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각 구단에 따르면 감독이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하차한 남녀부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여자부 IBK기업은행은 남은 시즌 감독대행

박철우 우리카드 대행, 3-2 역전승 이끌며 기량 발휘
고준용 삼성화재 대행, 선두 대한항공 잡고 파죽지세
‘선전’ KB손보·IBK도 구단 분위기 위해 감독 영입 자체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우리카드는 마무리시도 파에스 전 감독이 사퇴한 뒤 박철우 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겼고, KB손보는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전 감독이 나마한 후 하현용 코

치가 감독대행으로 지휘 중이다. 또 삼성화재는 팀 창단 후 최다인 10연패 수모를 겪고서 김상우 전 감독 사퇴 후 고준용 코치에게 감독대행 지휘봉을 넘겼고, 기업은행은 김호철 전 감독 사퇴 후 여오현

수석코치가 감독대행으로 활동 중이다.

2005년 출범한 V리그에서 네 명의 감독대행이 동시에 팀을 지휘한 건 이례적이다. 네 팀 모두 당분간 감독대행 체제로 팀을 꾸려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박철우 감독대행은 임시 사령탑 데뷔전이었던 2일 OK저축은행과 3-2 역전승을 지휘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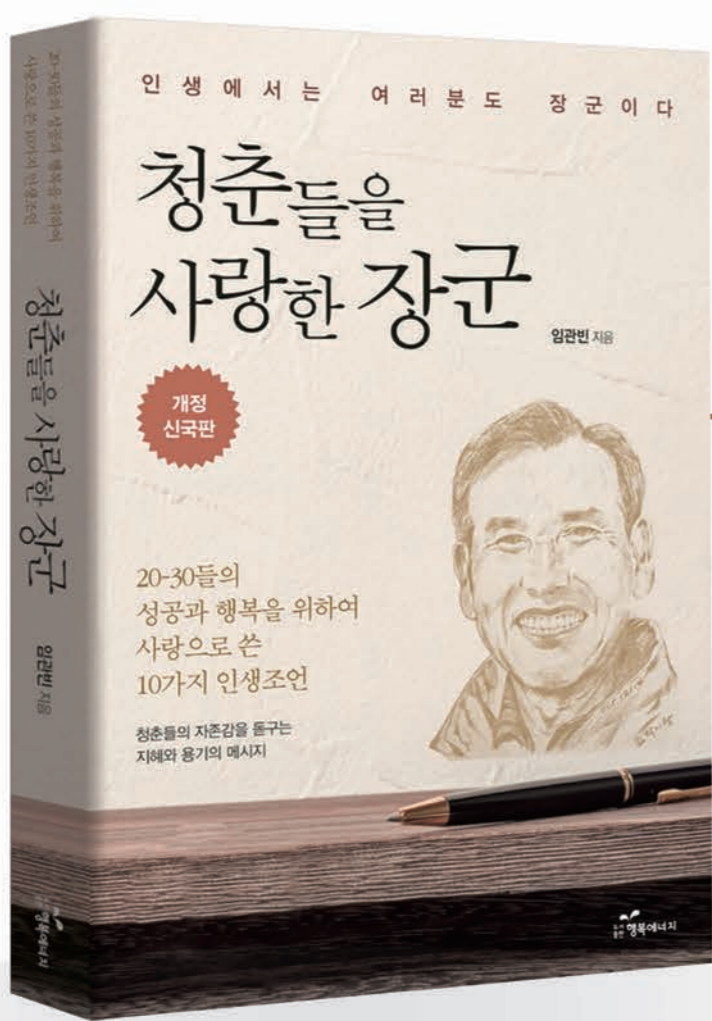
외국인을 포함 사령탑 후보군 선별 작업을 병행하는 KB손보도 하현용 감독



(왼쪽부터) 박철우 우리카드 감독대행·하현용 KB손해보험 감독대행·고준용 삼성화재 감독대행·여오현 IBK기업은행 감독대행. 한국배구연맹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화재 역시 감독 후보 리스트를 만들면서 고준용 감독대행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 고 감독대행은 지난달 OK저축은행전 3-2 승리에 이어 새해 첫날 1일에

는 선두를 달리는 대한항공까지 3-2로 잡고 2연승 상승세를 지휘하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여오현 감독대행의 올 시즌 정규리그 성적표를 보고 ‘대행’ 표리표를 때는 등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